

회원유원지 지하철참사 추모관건립 반대결의(안)

의안 번호	135
----------	-----

제출년월일 : 2005. 5. 26

발 의 자 : 정종태 의원
외 2인

1. 제안이유

- 지하철참사 사고는 대구시내에서 발생하였음에도 지하철과
관련없는 회원에 추모관을 짓고자 하는 것은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일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 회원읍민을 주축으로 추모관건립 결사반대 비상대책위원
회가 결성되어 투쟁집회를 가지는 등 실력행동이 고조되고
있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장을 밝히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구시와 소방본부에서 추진코자하는 회원유원지 일원에
지하철참사추모관 건립계획을 반대하고
- 회원유원지는 군민과 시민의 휴양공간으로 보존하고,
희생자의 유골을 포함하는 추모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 우리군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뜻이
관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갈 것을 결의함

화원유원지 지하철참사 추모관건립 반대결의(안)

화원유원지 일대는 신라시대 이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아름답고 쾌적한 유원지로서 군민은 물론 대구시민과 인근지역에서도 각광받는 휴식공간이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과 학생들에게는 소풍과 놀이공간으로 즐겨찾는 명소로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구시는 2003년 2월 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참사와 관련한 추모관을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화원유원지 일원에 계획 중인 방재테마공원안에 건립키로 하고, 이 추모시설 안에 추모관과 위령탑, 전시관 등이 들어서고 희생자들의 유골도 안치하려는 계획에 대해

화원지역 주민들은 지난 2002년 10월 화원읍민 32,000여명이 서명하여 국도5호선의 만성 교통체증을 타개코자 대곡역에서 화원설화까지 지하철연장을 요구하였으며, 우리군의회에서 2000년과 2004년에 2회에 걸쳐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성사되지 않은 마당에

대구시내에서 발생한 지하철참사의 추모관을 지하철이 연결되지도 않은 화원지역의 경관이 수려한 유원지 일원에 건립코자하는 것은 도시공원 개념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으로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반대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바,

달성군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합심하여 노력하고, 지역주민의 뜻을 도외시한 대구시의 지하철참사추모관 건립반대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대구시와 소방본부는 지하철과 관련없는 화원유원지 일원에 지하철참사 추모관건립을 즉각 중단하라.
- 화원유원지는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으로 군민과 시민이 공유하는 휴식과 놀이 공간으로 보존하라
- 방재테마공원조성은 유원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추모관 건립계획은 전면 철회하라
- 달성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추모관 건립계획에 전면반대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5년 5월 26일

달성군의회 의원일동

【회원유원지 지하철참사 추모관건립 반대결의안】

- 정종태 의원 외 2인 발의 -

서 명 날 인 서

의 원 명	서 명	날 인
정 종 태	정종태	(주)
김 삼 도	김삼도	
유 판 호	유판호	